88. 채털리 부인의 사랑의 여러 가지 해적판이 많이 나도는 데 대처하기

위하여 나는 1929년에 프랑스에서 한 권에 60프랑짜리 염가 보급판을 발행

했다. 이것으로 적어도 채털리 부인의 사랑의, 유럽에서의 수요가 충당

되기를 바랐다.

미국에서 해적판이 출현한 것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.

뉴욕에서는 피렌체로부터 원본이 미국에 도착해서 채 한 달도 되기 전에

벌써 최초의 해적판이 팔리고 있었다. 이것은 원본에서 만들어 낸 사진판

으로, 어엿한 서점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들에게 마치 원본의 초판인

것처럼 팔고 있었다. 값은 원본의 초판본이 10달러인 데 비해 해적판은 보

통 15달러 정도였다. 그러나 해적판 구입자들은 기꺼이 이 사기 행위에 걸

려들고 있었다.

이 용감한 행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. 심지어 뉴욕이나

필라델피아에는 이것과는 또 다른 사진판이 있다고 들었다. 나 자신도 그

오렌지색의 크로스 장정에 녹색 레벨이 붙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

불결한 느낌을 주었다. 이것도 역시 사진판 책이었는데 잉크가 번진 듯했

으며 나의 가짜 서명이 그려져 있다.

아마도 이 해적판 출판자가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라도 시킨 모양이다.

이 판은 1928년말 뉴욕에서 런던으로 건너와 한 권에 30실링에 팔렸다.

그러나 이때 나는 피렌체에서 제2판 2백 권을 한 권에 1기니(21실링)에 출

판했었다. 나는 이 판을 한두 해 정도 갖고 있고 싶었지만 이 오렌지색의

불결한 해적판에 대항하기 위해 세상에 내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, 그러나

내가 출판한 것은 부수가 적었기 때문에 오렌지색 해적판이 여전히 나돌았

다.

매우음침한 느낌이 드는 판이 또 한권 있다.표지가 검고, 성서나두꺼

운 찬송가 책처럼 어두워 보인다.

이 판에는 진지함뿐만 아니라 진실성까지도 나타나 있다. 이 책의 속표

지는 한 페이지가 아닌 두 페이지다. 모든 페이지에 미국을 나타내는 독수

리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, 독수리의 머리는 여섯 개의 별로 장식되어 있으

며 발에서는 전광이 방사되고 있다. 그리고 이 그림 전체에 윌계관이

씌워져 있다. 이 월계관은 그 문학적 도둑 행위를 표창하는 것이다, 전체적

으로 이것은 사악한 느낌이 드는 책이다.

얼굴을 검게 칠한 해적, 키드 선장이 이제부터 널빤지를 건너게 해서 바

닷속에 라뜨리려 하는 남자를 향해 설교하고 있는 것 같다. 왜 이 해적판에

이와 같은 기만스러운 속표지가 한 장 덧붙여져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.

이 속표지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사악한 지시 같은 것

을 느끼게 한다. 이 책도 역시 사진판인데 서명은 웬일인지 말소되어 있다.

이 한심한 책의 가격은 파는 사람의 기분과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따라

결정되는데, 20이나 30내지 50달러 정도라고 한다.

이렇게 미국의 해적판은 적어도 세 종류가 되는데, 나는 그 밖에 한 종류

더, 역시 사진판으로 된 해적판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. 그러나 현품을 보지

못했으므로 그것은 믿고 싶지 않다.

유럽에도 한 종류의 해적판이 있다. 이것은 1천 5백 권짜리 판으로 발행

처는 파리의 어느 서점인태, '독일에서 인쇄'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. 정말

로 독일에서 인쇄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야 어찌 되었든, 이것이 인쇄되

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.

이것은 원본의 틀린 철자가 몇 군데 교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판이 아

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. 이것은 매우 훌륭한 책으로 원본과도 아주 비

슷했다. 그것은 서명이 없는 것과 책 뒤의 귀퉁이에 녹색과 노란색의 비단

천을 입힌 것으로도 알 수 있다. 이 책은 일반 서점에서는 한 권에 1백 프

랑, 독자들에게는 3--4백, 혹은 5백 프랑에 괄린다. 그런데 책에 가짜 서명

을 하고는 이것을 서명이 들어 있는 원판이라고 팔고 있는 매우 약은 책 장

수도 있다고 한다.

이런 일은 상도덕이 땅에 떨어진 느낌을 받는다.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

도 있다.

해적판은 절대로 매매하지 않는 서점 주인도 있는데 그들은 감정적으로

나 상업상의 배려로나 그런 짓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. 반면 일부 서점 주

인들은 해적판이라도 판다. 그렇다고 그다지 열심히 파는 것은 아니다. 그

들이 비록 해적판을 완전히 내몰 만큼 강하지는 못할지라도 해적판을 달가

워하지 않고 기왕이면 원판을 팔고 싶은 것만은 분명하다.

이 해적판들은 나의 아무런 승낙도 없이 발행되었고 나는 그 어떤 곳애

서도 돈 한푼 받지 않았다. 그러나 다소 가책을 느낀 뉴욕의 어떤 서점 주

인이 내게 약간의 돈을 보내왔다. 그는 이것이 그의 서점에서 판 꺽에 대한

10次센트의 인세(人稅)라고 했다. '이런 돈은 물통에 떨어뜨린 한 방울의

물에 불과하다는 것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'라고 그는 써 보냈다. 물론

이것은 '물통에서 넘쳐흐른 한 방울'이라는 뜻이다. 그러나 한 방울치고는

목돈이었으므로 해적판이 물통에 모은 돈은 굉장한 것이었으리라 생각된

다.

유럽의 해적들은 뒤늦게나마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해 왔다. 그들은 소매

서점 주인들이 완고한 것을 알자, 내게 이제까지 팔린 부수와 앞으로 팔릴

예정 부수 전부에 대해 인세를 지불하겠으니 그 대신 그들이 갖고 있는 판

을 인가하라는 것이었다. 그럴까? 하고 생각했다. 먹느냐, 먹히느냐 하는

마당에 이 정도야 상관없지 않은가? 그러나 결단을 내리럭 하자 역시 자존

심이 허락치 않았다. 유다는 언제나 키스하려고 기다리고 있다. 그러나 그

의 키스를 받으면 나도 그에게 키스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!

그래서 나는 간신히 원판에서 이 사진 제판한 소형본을 출판하기로 했

다. 값은 60프랑. 영국 출판업자들은 내게 다이제스트판을 만들도록 권헨

다. 틀림없이 굉장히 팔릴 거라고 했다. 아이들의 모래 장난용 작은 물통애

하나 가득 찰 정도의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지 모른다!

그들은 또 세상에, 호화 찬란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, 이 훌륭한 소

설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. 그래서 나는 그 권유에 따라 다이제스트

판 제작을 시작했다.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었다! 그런 짓을 하느니 차라리

가위로 자신의 코를 잘라 버리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. 책도 피를 흘리는 법

이다.